

보도시점 2025. 4. 17.(목) 조간  
2025. 4. 16.(수) 12:00

배포 2025. 4. 16.(수)

## 제2차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

-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공모 신청(5.7.~5.23.), 선정·통보(6.25.)-

보건복지부(장관 조규홍)는 4월 16일(수) 제2차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공모 계획을 발표하였다.

유니트케어 시범사업\*은 자율성 및 사생활 보호로 대표되는 새로운 돌봄 욕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요양시설 인프라를 강화하고 돌봄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질 높은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였다.

\* 공동생활을 하는 요양시설에서도 사생활 보호를 실천하기 위해 다인실 위주의 구조를 1인실 위주로 전환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함('24.7.~)

유니트\*는 소규모 인원(정원 9인)을 하나의 거주·돌봄의 관리 단위로 하되, 1인실 원칙화·공용공간 확보 의무화 등을 특징으로 한다.

\* 1개 유니트는 하나의 공용공간과 9개의 개인 침실로 구성되어 있음

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시설과 인력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 우선, 시설\*은 ▲유니트 내 침실 1인실 원칙화, ▲1인실 최소 침실면적 10.65㎡ 이상, ▲정원 1인당 최소 공동거실 면적 2㎡이상, ▲유니트당 화장실 및 욕실을 1개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.

\* (일반 노인요양시설) ▲3·4인실 위주, ▲1인당 침실 최소 면적 6.6㎡ ▲공동거실 설치 의무 X, ▲시설당 화장실·욕실 1개 이상

또한 유니트 내 근무 요양보호사는 배정된 유니트에 전임근무를 해야 하며, 전원 치매전문교육\*을 이수해야 한다. 그리고 노인요양시설(총 정원 10인 이상 시설)에 설치된 유니트는 개별 유니트마다 장기요양청구경력이 3년 이상인 리더급 요양보호사를 배치해야 한다.

\* (교육과정) ①기본과정 40시간, ②시설과정 20시간, ③관리자과목 13시간, (과정별 내용) ①치매 특성 이해 등 ② 치매환자에 맞춘 일상생활 지원 등 ③ 치매환자 개인별 프로그램 계획수립 등

보건복지부는 '24년 7월부터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을 시작하였고, 현재 7개 시설에서 총 11개 유니트\*를 운영 중이다. 유니트케어 모델의 확산을 위해 '25년 7월부터 제2차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을 이어 추진한다. 참여 대상은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이며, 20여 개 유니트를 선정할 계획이다. 개별 시설은 복수 유니트로 참가 신청을 할 수 있지만, 선정과정에서 지역 간 형평성 등 사정을 고려해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.

\* 경기 4개소(8개 유니트), 전북 1개소(1개 유니트), 전남 1개소(1개 유니트), 충남 1개소(1개 유니트)

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은 오는 5월 7일(수)부터 5월 23일(금)까지 참여 신청을 받고,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6월 25일(수) 참여기관 최종 선정 및 발표할 예정이다.

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(www.mohw.go.kr),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 장기요양보험(www.longtermcare.or.kr)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, 전화(044-202-3516, 033-736-1915)로도 문의할 수 있다.

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“장기요양시설은 어르신들이 입소 후 여생을 보내시는 장소인만큼, 내 집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”라며 “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” 라고 밝혔다.

<붙임> 제2차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개요

담당 부서	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	책임자	과 장	김도균 (044-202-3510)
		담당자	사무관	안희정 (044-202-3513)
	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자원실 기관관리부	담당	부장	강명자 (033-736-1902)

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
**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**



□ **추진 배경**

- 사생활을 중시하는 신노년층의 변화된 돌봄 수요 충족을 위해 1인실 위주로 시설 환경 등을 개선하는 유니트케어\* 시범사업 추진

\* 신규 수요 대응을 위해 소규모 인원(정원 9인)을 하나의 '유니트(시설 내 거주·돌봄 단위)'로 서비스 제공하는 요양시설 모델

□ **시범사업 개요**

- (사업내용) 침실 전면 1인실화\*·공용공간 필수 배치 등으로 시설 인프라 강화, 인력배치·전문성 등 제고 통해 돌봄 품질 향상

\* 지인 등의 공동입소 수요 대응을 위해 유니트당 2인실 최대 2개 설치 허용

- (사업대상)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노인의료복지시설
- (사업기간) '25.7.~'26.6(필요시 조정 가능)
- (참여기관 지원) ①운영지원비 + ②인센티브 + ③프로그램 지원비
  - (세부내역) ①유니트케어와 일반 요양시설의 수가 차액, ②참여기관별 月 135만원, ③증빙자료 제출시 유니트별 月40만원

□ **주요 내용**

- 입소를 새로운 생활 장소로의 전입으로 받아들이도록 전면 1인실화와 동시에 공용공간 확보 등을 통한 입소자 간 교류 활성화 지원
  - (시설기준) 개인실 원칙화, 1인당 침실 면적 확대(6.6㎡→10.65㎡), 공용거실 의무화(정원 1인당 2㎡ 이상), 화장실·욕실(유니트당 1개 이상)

< 시설 기준 비교 >

	일반	유니트케어
침실	다인실 설치 가능 1인실 면적 6.6㎡ ↑	1인실 원칙 1인실 면적 10.65㎡ ↑
공동거실	-	정원 1인당 2㎡ ↑
화장실 욕실	시설당 1개	유니트당 1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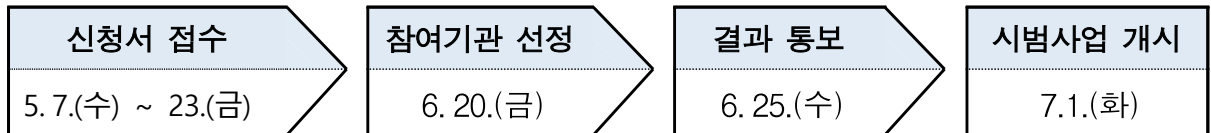
- (인력배치) 입소자 1인당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강화, 요양시설  
유니트 내 리더급 요양보호사\* 배치 의무화

\* (리더급 요양보호사) 장기요양 청구 이력 3년 이상 보유要, 참여기관장 자체 선정

- (인력교육) 시범사업 참여 요양보호사는 치매전문교육 이수要

□ 향후 계획

○ (추진일정)



\*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, 선정 결과는 개별기관에 문서 통보 예정

○ (선정방법) 서류심사, 기관방문, 선정위원회 심사 등

○ (결과통보) 2025. 6. 25. 신청기관 개별 통보